

60년대 한국소설과 허무주의, 무거운 우울의 가능성: 김승옥과 니체의 허무주의 비교를 중심으로

박 성 진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 국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60년대 한국사회의 허무주의의 양상을 김승옥의 단편을 통해 점검하고 니체의 적극적 허무주의의 개념을 통해 허무주의의 극복 가능성을 살피는 것이다. 본 논문은 60년대를 주제로 하는 김승옥의 소설이 단순한 염세주의자의 독백이 아닌 허무주의의 완성을 통해 허무주의를 극복하려는 시도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김승옥의 단편은 50년대 소설과 달리 허무의 상황과 가치가 무너지는 현장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있다. 그리고 김승옥은 자기기만과 자기 합리화로 점철된 인생에서 성장은 환멸의 체험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모든 것의 배후에는 결국 '무(無)'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가치가 작동하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질서나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무(無)로 돌아가야 하며 '없음'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허무주의의 완성을 통해 허무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김승옥의 시도는 니체가 근대의 가치가 무너진 허무주의의 시대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유와 그 맥락을 공유하고 있다. '신이 죽었다'는 명제는 플라톤 이래로 내려오는 합리주의의 몰락과 근대적 가치의 종말을 의미한다. 니체는 가치의 몰락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극적 허무주의'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새로운 가치의 창출을 위해 기존 가치의 완전한 무너짐을 지향했던 니체의 철학은 김승옥이 60년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분투했던 모습과 유사하다. 그리고 니체와 김승옥의 이러한 시도는 현대라는 또 하나의 허무의 공간을 주유하는 우리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 세계를 정면으로 직시하고 허무의 완성으로 허무를 극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 60년대, 김승옥, 허무주의, 니체, 적극적 허무주의

I. 서론

김승옥의 소설을 읽는 것은 힘겹고 버거운 것이며 문자의 불편함을 실감하는 일이다. 그 이유는 그의 소설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의 작품들이 던져주는 무기력한 허무주의의 냄새 때문이다. 김승옥의 텍스트는 말 그대로 언어가 지니는 무거운 우울이다.¹⁾ 무진의 그 툭툭한 안개 속에서 끝나지 않을 부끄러움에 고뇌하는 사내에게, 그리고 1964년 서울이라는 허무의 공간 속에 던져진 세 인물에게서 우리는 외면하고 싶은 실의와 체념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그 실의와 체념은 전쟁의 상흔이 가지지 않은 60년대라는 시대적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 그러나 김승옥에 의해서 잔잔하지만 피가 흐르듯 전해져 오는 무거운 우울의 양상은 단순한 실의와 체념이 아니다. 오히려 실의와 체념의 극한이며 그 완성인 것이다. 허무의 순간, 가장 비극적인 순간을 정면으로 직시함으로써 완성되는 순수한 무(無)의 지향이다. 김현의 표현대로라면 ‘반성-파탄-재조정’의 악순환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니체식으로 표현하자면 ‘최대의 무게’에 대한 긍정이다.

지독하면서 처절한 60년대라는 그 허무의 공간을 통해 김승옥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60년대에 대한 상황인식에 기반한 기괴한 염세주의적 독백을 통해 그는 비극의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나에게 ‘60년대 작가’라는 별칭이 붙어다니는데 아닌게 아니라 이제보니 이 카테고리야말로 60년대 상황인식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다. 60년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내가 써낸 소설들은 한낱 지독한 염세주의자의 기괴한 독백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60년대라는 조명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소설들은 일상적인 모습으로 동작하는 것이다. 내가 ‘60년대 작가’임을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²⁾

김승옥 스스로 이야기하듯 60년대라는 시대적 상황을 통해 전달하는 지

1) 김현, 「현대 한국 문학의 이론/사회와 윤리」, 『김현 문학전집 2』, 문학과 지성사, 1995A, 210쪽.

2) 김승옥, 「작가의 말」, 『김승옥 소설전집』 I, 문학동네, 1998, 7쪽.

독한 염세주의적 독백은 단순한 허무주의의 전달이나 무기력한 괴로움의 외침이 아니다. 김승옥은 허무의 상황, 즉 모든 가치가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김승옥이라는 이 철저한 니힐리스트는 긍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은 독자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오던 존재 방식이 무너진 상황에서 그 존재 방식들의 완전한 무너짐이 바로 허무의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김승옥의 소설이 반영하는 당대의 일상성과 덧없음 그리고 그 의미없는 언어들 은 시간적 거리를 갖는 독자에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³⁾ 그가 제시한 60년대 삶의 모습과 시대에 만연한 가치전도의 현상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지금 우리는 알지 못한 것으로 변해버린 자신에 대한 절망적 불안감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불안감은 무진의 늑늑한 안개처럼 지금도 시대와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 이러한 불안감을 벗어 던지기 위해서라도 김승옥이 제시한 60년대의 저 염세적인 현실을 다시 보아야 한다.

II. 1960년대, 또 다른 니힐리즘의 기록

무기력한 허무주의를 내세우며 삶의 덧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문학에서는 일반적인 소재라 할 수 있다. 한국 문학에서도 이러한 소재는 우울한 시대적 상황과 연결되어 빈번히 등장한다. 이미 식민지 시대의 모더니스트들은 대혹과 반발, 열광과 환멸이 교차하는 정신적 무질서를 증언했으며 손창섭으로 대표되는 50년대 작가들은 너무나도 무기력한 인간, 그리고 그 인간이 감수해야 하는 모멸과 절망을 묘사했다. 하지만 60년대로 들어오면서 이러한 허무의 양상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 50년대 작가들이 만든 주인공들은 대부분 자신의 상황을 무의지적으로 수락해 버린다. 손창섭의 『비오는 날』에 실린 여러 단편들에 자주 등장하는 이런 인물들은 그 의식의

3) 신형기, 「분열된 만보객(漫步客): 김승옥의 1960년대 소설 읽기」, 『상허학보』 제 11집, 2008, 203쪽.

수동성을 극명히 하기 위해, 병을 앓거나, 군대를 갔거나, 돈이 없거나 하는 상황 설정을 배당받는다.⁴⁾ 하지만 김승옥으로 대표되는 60년대 소설의 주인공들은 자신의 상황을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는다. 절망적인 상황에 던져졌다는 것은 50년대의 분위기와 같지만 김승옥 소설의 주인공들은 그 상황을 뚜렷이 인식하면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들은 절망과 허무의 상황, 가치의 무너짐을 정면으로 직시하며 그 무너짐의 완성을 통해 스스로를 더욱 무너져 내리게 만든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며 절망하고 환멸을 느끼는지 김승옥의 소설로 들어가 보자.

「건(乾)」에서의 ‘나’는 죽어있는 빨치산의 시체 앞에서 이데올로기의 숭고함은 커녕 시대가 던진 가공할 폭력조차 경험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그토록 이야기하던 ‘빨치산’이나 ‘빨갱이’에게서 ‘나’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다만 그 시체에게서 “영락없이 만취되어 길가에 쓰러진 한 거지의 꼬락서니”만을 발견한 ‘나’에게 빨치산은 세계 돌팔매질을 해도 되는 하찮은 일상인에 불과했다.⁵⁾ 그 대단하다던 빨치산의 시체를 본다면 무언가 새로운 것을 경험할 것 같았지만 ‘나’는 그 시체에게서 허무를 경험할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망감은 빨치산의 습격으로 남해로의 무전여행이 취소된 형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음모에 가담하게 만든다. ‘나’와 친했던 윤희 누나를 겁탈하려는 형들의 음모에 적극 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나’의 허무와 타락 그리고 자학은 완성된다.

아아, 모든 것이 항상 그렇지 않았더냐. 하나를 따르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개 위에 먹칠을 해 버리려 할 때, 그것이 옳고 그르고를 따지기보다 훨씬 앞서 맛보는 섭섭함. 하기가 그것이 ‘자라난다’는 것인지도 모른다. 미영아, 내게 응원을 보내라. 형들의 음모에 가담한다는 건 아주 간단한 일이다. 미영아, 내게 응원을 보내라. 그건 뭐 간단한 일이다. 마치 시체를 파묻듯이 그것 아주 간단한 일이다. 뭐 난 잘 해낼 것이다. 「건(乾)」

4) 김현, (1995A), 383쪽.

5) 김미현, 「서울의 우울: 김승옥론」, 『무진기행: 김승옥 소설집』, 민음사, 2012, 388쪽.

어떤 죽음이든 그것에는 심오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 더구나 그는 빨치산이 아닌가? 그의 죽음에는 어떤 비장함이나 처절함, 아니면 최소한 주검이 주는 끔찍함이라도 있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죽음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 이러한 허무는 결국 ‘나’가 가지고 있던 도덕적 상상력이나 윤리적 세계관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죽음조차 의미가 없는데 그 어느 규범적 요소가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인가. 하지만 아직도 윤희 누나를 겁탈하는 음모에 가담하는 것은 겁이 난다. 그래도 ‘나’는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허무함을 완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허무함을 완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라나다’는 것이다. 결국 성장은 자기기만이며 환멸과 무너짐의 체험이다.

인간이 얼마만큼 자기기만을 감수하고 있느냐에 대한 김승옥의 이 침통한 진술은 「무진기행」에서 더욱 극명히 나타난다.⁶⁾ 이 단편은 실의에 빠져 살아가던 청년이 서울로 상경했다가 돈 많은 과부와 결혼하여 출세를 한 뒤 고향에 잠시 들렀다 여선생과 정사를 벌이고 다시 상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인공 윤희중은 안개만이 유일한 명물인 무진에 왔지만 그가 느끼는 것은 과거의 외면하고픈 기억과 유행가, 술집 여자의 자살 그리고 배반과 무책임뿐이다.

희중에게 무진은 비열함과 자기기만으로 점철된 청춘의 편린이다. 전쟁 중 집 안 다락방에 숨어 징집을 피해 있으면서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을 부르며 전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끝없는 비참함을 경험한 비열의 기억인 것이다. 이웃집 청년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렇게 숨어 있는 것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인지를 강조하는 어머니의 말 속에서 나의 비참함과 천박함은 더욱 깊어진다. 하지만 이 천박함의 대가는 일견 명확한 듯 보였다. 희중은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주는 과부와 장인을 만났으며 이로 인해 무진에서 가장 출세한 사람이 되었다. 무책임과 비열한 나 자신과의 타협안은 희중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쓰린 과거가 되살아나는 안개의 공간에서 희중은 인숙을 만나게 된다. 성악을 전공하여 ‘목포의 눈물’을 노래하는 여선생에게서 희중은 “유행가가 내용으로 하는 청송맞음과는 다른 좀 더 무자비한 청송맞음”을 느끼게 된다. 또한

6) 김현, (1995A), 386쪽.

그녀의 노래에는 “머리를 풀어헤친 광녀의 냉소가 스며 있었고, 무엇보다도 시체가 썩어가는 무진의 그 냄새가 스며”있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싫어 질 때가 있다는 그녀에게서 희중은 괴로웠던 과거의 자신을 발견하고 그녀와 정사를 맺고 그녀를 위한 여러 가지 약속을 하게 된다.

하지만 나는 곧 서울에서 급히 올라오라는 아내의 전보를 받고 무진을 떠나게 된다. 희중에게 무진을 떠난다는 것은 또 다시 무책임을 긍정하는 것이며 다시 나와 타협이 필요한 일이다. 자신의 모습과 닮은 사랑의 대상을 버리고 현실의 논리를 따른다는 가치의 전도가 필요한 일인 것이다.⁷⁾ 그래서 희중은 다시 비열한 타협안을 작성한다.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타협안이다. 그리고 나를 위로하듯 그녀에게 편지를 쓰고 이내 찢어 버린다. 부끄럽다. 하지만 서울에서 희중의 삶은 이 부끄러움을 곧 보상해 줄 것이다.

한 번만 마지막으로, 이 무진을, 안개를, 외롭게 미쳐가는 것을, 유행가들, 술집 여자의 자살을, 배반을, 무책임을 긍정하기로 하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다... 덜컹거리며 달리는 버스 속에서 나는, 어디쯤에선가, 길가에 세워진 하얀 팻말을 보았다. 거기에는 선명한 글씨로 <당신은 무진을 떠나고 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써어 있다. 나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무진기행」

타협안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환멸스러운지는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부끄러움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부끄러움은 미쳐가는 것을, 술집 여자의 자살을 그리고 이 안개를 이해하고 그것을 넘어서지 않는 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희중은 이렇게 치열한 허무의 끝자락에 놓여 있다.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그것을 수락함으로써 자기 세계를 갖게 되는 사람이 내보여주는 이러한 태도의 희극은 「생명연습」에서부터 시종일관되는 작가의 제재이기도 한데, 바로 이 점 때문에 그의 소설은 계속 독자의 가슴을 찌르고 할컹다.⁸⁾

7) 설혜경, 「60년대 문학 주체의 마조히즘의 윤리학: 김승옥의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60집, 2015, 339쪽.

8) 김현, (1995A), 388쪽.

‘자기 세계’라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몇 명 나는 알고 있는 셈이다. ‘자기 세계’라면 분명히 남의 세계와는 다른 것으로서 마치 함락시킬 수 없는 성곽과도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 성곽에서 대기는 연 초록빛에 함뿍 물들어 아른 대고 그 사이로 장미꽃이 만발한 정원이 있으리라고 나는 상상을 불러일으켜보는 것이지만 웬일인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세계’를 가졌다고 하는 이들은 모두가 그 성곽에서도 특히 지하실을 차지하고 사는 모양이었다. 그 지하실에는 곰팡이와 거미줄이 실재없이 자라나고 있었는데 그것이 내게는 모두 그들이 가진 귀한 재산처럼 생각된다. 「생명연습」

김승옥은 ‘자기 세계’를 갖는다는 것은 비열함을 긍정하는 것이며 환멸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더러운 곰팡이와 거미줄을 쌓아가며 ‘어쩔 수 없음’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 그것은 살아있는 모든 것이 해야 하는 생명의 연습이다. 그에게 성장은 환멸의 체험이며 그 고통스러운 체험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 생명을 가진 것들은 모두 푸르른 대기와 장밋빛이 비추는 위로와 평안이 아닌 녹록하고 불결한 지하실을 가지고 있다. 그 비밀의 왕국 속에서 사람들은 자학과 죄의식 속에서 살아가지만 동시에 윤리나 도덕 등 세상의 모든 규범과 가치로부터 자유롭다. 이러한 비밀의 왕국 속에서 선교사는 자위행위를 하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닮은 여러 남자들을 전전한다. 그리고 형은 그러한 어머니를 죽이고자하고 만화가는 직선을 자를 대고 그렸다고 괴로워하고 은사인 한 교수는 사랑하는 여자의 육체를 범해 버림으로써 오히려 그 여자를 떠날 명분을 마련한다. 이처럼 김승옥에게 60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상처이든 아니면 감추고 싶은 기억이나 억지스러운 자기합리화이든 자기세계라는 지하실에서 스스로를 기만하며 허무의 공간을 주유하는 존재들이다.

60년대를 억척스럽게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곰팡이 핀 지하실을 가지고 있다. 그곳이 창신동 빈민가의 쪽방이든 아니면 고급 양옥주택의 병실같이 하얀 방이든 사람들은 지하실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철편’, ‘현기증’, ‘살의’ 그리고 ‘회오’와 ‘사랑’까지 모두 가지는 결코 건강하지만은 않은 모습이다.⁹⁾ 따라서 “창신동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개새끼들이외

9) 유흥주, 「김승옥 소설의 60년대적 특징에 대한 고찰」, 『현대문학이론연구』, 2010, 2019쪽.

다.”라는 빈민가 쪽방의 낙서도 비단 창신동이라는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역사」의 주인공인 ‘나’는 소위 창신동으로 대변되고 있는 빈민가와 고급 주택가에서의 생활을 모두 경험하게 된다. ‘나’는 무질서하고 퇴폐적이며 게으른 ‘개새끼’들이 사는 창신동 하숙집에서 ‘규칙적인 생활 제일주의’와 ‘정식(正式)의 생활’을 영위하는 양옥으로 하숙을 옮겼을 때 문화적 충격을 받게 된다.¹⁰⁾ 처음에는 양옥집의 생활을 동경하게 되었으나 도시 상류층의 생활도 빈곤편이를 알게 되면서 ‘빈민가에서 파견된 척후’가 되어 양옥집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빈민가의 삶이든 양옥집의 삶이든 어떤 것이 옳은 것도 틀린 것도 아니다. 명증한 것은 단 하나, 모두 고통스럽다는 사실뿐이다.

“어느 쪽이 틀려 있었을까요?”

“글쎄요.”

라고 나는 대답하며 생각했다. 나로서는 얼른 믿어지지 않는 얘기가 다. 첫째, 그런 생활이 있을 것 같지 않고, 있다고 해도 어느 쪽이 반드시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고, 오히려 두 쪽 다 잔혹할 뿐이라는 점에서 똑같고, 어느 쪽이 틀렸다고 해도 그것은 그 젊은이가 이질적인 사실을 한눈에 동시에 보아 버리려는 데서 생긴 무리(無理)이겠지라고.

“내가 틀려 있었을까요?”

라고 그 젊은이는 다시 내게 물었다.

“글쎄요.”

「역사(力士)」

사람들은 자신만의 지하실을 가지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는 곳에서 살아간다. 어떠한 가치도 작동하지 않는 곳에서 다만 잔혹할 뿐이다. 무진의 안개 속이든 빨치산의 시체를 바라보는 눈동자 속이든 그리고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의 기억 속이든 60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환멸과 허무로 점철된 잔인한 곳이었고 살아있는 모든 것에게 세상을 살아낸다는 것은 슬픈 일이었다.

이처럼 60년대를 대표하는 김승옥은 허무의 상황에 던져지는 수동적인

10) 김미현, 앞의 글, 391쪽.

인물들을 묘사하는 50년대 작가들과 달리, 독자들로 하여금 불편한 이야기들을 정면으로 직시하게 하며 그것을 인식하게 한다.¹¹⁾ 김승옥이 그리는 인물은 항상 괴로워하고, 기만하고, 악을 쓰고, 울고, 고민한다. 그들은 전부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만을 하고 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김승옥의 인물들은 항상 이런 질문을 내뱉지만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한다. 그의 주인공들은 좌절된 인간들이다.¹²⁾ 하지만 이들은 질서가 없고, 가치 판단의 기준이 없으며 신이 없는 상황을 푹푹히 보고 있으며 그것을 뚜렷이 봄으로써 허무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다면 김승옥은 이 지독한 염세주의적 세계관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가. 그의 소설은 왜 자꾸 그 치근치근하고, 음울하고, 후텁지근한 분위기 속으로 독자들을 밀어붙이는 것인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1964년 겨울, 서울의 모습을 보아야 할 것 같다.

Ⅲ. 모든 것의 배후에는 ‘무(無)’가 있다

1964년 겨울, 서울에 밤이 찾아오면 포장마차들이 하나 둘 등장하고, 오텩과 구운 참새 등을 안주로 팔며 카바이드 불이 바람에 흔들리는 허름한 곳으로 사람들이 모여든다. 김승옥의 소설 「서울 1964년 겨울」은 이 포장마차에서 만난 세 인물들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 세 사람이란 “나(김)와 도수 높은 안경을 낀 안이라는 대학원 학생과 정체는 알 수 없지만 요컨대 가난뱅이라는 것만은 분명하여 그의 정체를 꼭 알고 싶다는 생각은 조금도

11) 김현은 55년의 작가와 65년의 작가가 분명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지만 명백히 구분되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연대기적으로 본다면 장용학이 49년에, 손창섭이 52년에, 그리고 선우휘, 송병수, 하근찬, 김동립이 57년에, 최인훈이 59년에 그리고 3년 뒤인 62년에 김승옥이, 64년엔 홍성원이 문단에 데뷔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소위 ‘전후문학인협회’에 가입하고 있었던 55년대 작가들과 제3세대라는 괴이하고도 선동적인 어휘로 불리어지고 있는 작가들 사이가 그렇게 심하게 단절되어 있지 않고 계속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55년대의 작가들과 65년대의 작가들을 가르는 게 상당히 편리한 것처럼 생각된다.” 김현, (1995A), 258쪽.

12) 김현, (1995A), 263쪽.

나지 않는 서른대여섯 살짜리 사내”이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각각 김승옥 적 인물의 세 패턴을 나타낸다.¹³⁾ 부잣집 장남이며 ‘김’에게는 상상이 되지 않는 전공을 가진 대학원생 ‘안’과 육군사관학교에 지원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군대에 갔다가 성병에 한 번 걸려본 적이 있는 평범한 공무원인 ‘김’ 그리고 가난뱅이, 이들은 김승옥이 바라보는 60년대 군상들을 대표하고 있다.¹⁴⁾ 또한 이들은 현재 처절한 허무의 상황에 놓여 있다. 가야할 곳도, 지켜야 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며 남영동 미용학원에 불이 났을 때, 불이 붙은 미용학원 간판의 글자들을 하나하나 찬찬히 응시하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들이 허무와 환멸을 대처하는 방법은 각각 다르다. 가난뱅이 사내는 아내의 시신을 병원에 팔고 끝내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아내라는 유일한 가치가 무너지자 그 가치를 그리워하며 결국 무너져 내린 인물이다. 김승옥이 보기에 60년대 허무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진 한 가지 선택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가치를 그리워하며 화살의 방향을 스스로에게 향하고 자학하며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선택지가 있다. ‘안’이라는 사람은 모든 것이 결국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수락하며 살아가는 인물이다. 의미없는 것에 의미를 두고 무가치한 것들에 가치를 두며 그저 순간을 살아가는 인물인 것이다. 자기만이 본 것을 자기만이 소유한 것이라 믿고 그저 허무를 받아들여 그것을 삶의 방식으로 수락한다.

“서대문 버스 정거장에는 사람이 서른두 명 있는데 그 중 여자가 열일곱 명이었고, 어린애는 다섯명 젊은이는 스물한 명 노인이 여섯 명입니다.”

“그건 언제 일이지요?”

“오늘 저녁 7시 15분 현재입니다.”

“아.” 하고 나는 잠깐 절망적인 기분이었다가 그 반작용인 듯 굉장한 기분이 좋아져서 털어놓기 시작했다.

“단성사 옆 골목의 첫 번째 쓰레기통에는 초콜릿 포장지가 두 장 있습니다.”

“그건 언제?”

13) 김현, (1995A), 388쪽.

14) 송준호,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 연구」, 『現代文學理論研究』 29집, 2006, 196쪽.

“지난 14일 저녁 9시 현재입니다.”

“적십자병원 정문 앞에 있는 호두나무의 가지 하나는 부러져 있습니다.”

“을지로 3가에 있는 간판 없는 한 술집에는 미자라는 이름을 가진 색시가 다섯 명 있는데 그 집에 들어온 순서대로 큰 미자, 둘째 미자, 셋째 미자, 넷째 미자, 막내 미자라고들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겠군요. 그 술집에 들어가 본 사람은 꼭 김 형 하나뿐이 아닐 테니까요.”

“아 참, 그렇군요. 난 미처 그걸 생각하지 못했는데. 난 그 중에서 큰 미자와 하루저녁 같이 잤는데 그 여자는 다음 날 아침, 일수로 물건을 파는 여자가 왔을 때 내게 팬티 하나를 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저금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 되들이 빈 술병에는 돈이 110원 들어 있었습니다.”

“그건 얘기가 됩니다. 그 사실은 완전히 김 형의 소유입니다.”

「서울 1964년 겨울」

‘안’에게 확실하고 정당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찰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가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물이다. 애써 자신을 위로하고 억지로 가치를 세우기 위한 자기기만을 시도하지 않으며 그저 허무와 공허 그리고 세상의 환멸을 받아들이며 살아간다. 따라서 ‘안’이라는 인물은 인생에 확신을 가지고 산 일이 없기에 절망하지도 기뻐하지도 않는다. 허무를 담담하게 체험할 뿐이며 순간적인 삶을 이끌어 간다. 이와 달리 ‘김’은 허무한 삶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인물이다. 물론 그의 방법에서 허무에 대항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려는 시도는 찾아 볼 수 없다. 그는 가치없는 것에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고 스스로 위안하는 자기기만을 시도하며 60년대를 살아낸다. 무진에서 부끄러움에 괴로워하던 회중과 삶의 양식이 유사한 것이다. 날기도 하지만 내 손에 잡힐 수 있는 ‘파리’를 사랑한다며 무가치에 가치를 포장하면서 살아가는 기만의 인물이다.

“안 형, 파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아직까진.....” 그가 말했다. “김형은 파리를 사랑하세요?”

“예.”라고 나는 대답했다. “날 수 있으니까요. 아닙니다. 날 수 있는 것으로서 동시에 내 손에 붙잡힐 수 있는 것이니까요. 날 수 있는 것으로서

손안에 잡아 본 적이 있으세요?”

「서울 1964년 겨울」

60년대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김’이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선택지는 결국 파리에었다.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파리에 가치를 부여하며 사랑하게 된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는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의미 없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자기기만의 방식이 그가 자신이 던져진 시대에서 살아가는 방식이다. 의미있는 세계가 그 의미를 잃고 의미 없다고 생각된 것들이 의식의 조작을 통해 의미있게 되는 것의 즐거움, 그 즐거움은 그러나 자족적인 유희의 즐거움이 아니라 장식적인 즐거움이다.¹⁵⁾ 이러한 자기기만의 방식은 가난뱅이 사내의 죽음을 대처하는 자세에서도 잘 나타난다. ‘김’은 가난뱅이 사내를 혼자 놓아두면 그가 죽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사내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역시.....’라고 대답하는 것에 잘 나타난다. 솔직히 그의 죽음은 모두가 짐작하고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김’은 그 사내가 죽으리라는 것을 짐작도 못했다고 자신을 위로하며 그의 죽음으로부터도 빠르게 도망간다. 죽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은 몰랐던 것이라며 그렇게 스스로를 기만한다.

이처럼 김승옥은 허무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 가지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무너져 내리거나 익숙해지거나 혹은 자신을 기만하거나 하는 것이 당대를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김승옥은 독자로 하여금 이 세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삶의 방식을 통해 그는 결국 모든 것의 배후에는 ‘무(無)’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김승옥이 보기에 모든 가치의 근원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것이 더러운 것이든 깨끗한 것이든 그 근원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모든 것의 배후에 무가 있다는 것은 「염소는 힘이 세다」에서도 잘 나타난다.

15) 김현, 「우리시대의 문학/ 두꺼운 삶과 얇은 삶」, 『김현 문학전집 14』, 문학과 지성사, 1995B, 121쪽.

“너 왜 그러니?” 누나의 입에서 자장면 냄새가 풍겨 나왔다. “더러워.” 하고 나는 말했다. “더러워, 저리 가!” 누나가 내 양쪽 어깨를 자기의 두 손으로 아플 만큼 눌러 쥐었다. “아무것도 아냐. 나도 취직할 수 있을 뿐 인걸.” 누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염소는 힘이 세다」

「염소는 힘이 세다」에서 ‘누나’는 자신을 겁탈한 남자를 증오하면서도 그가 내민 호의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누나의 행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것을 더럽다고 생각하지만 곧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더러운 것이 곧 누나를 버스회사에 취직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아픈 엄마는 “살기란 힘든 거란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더러워.”라는 ‘나’의 말에 누나는 “아무것도 아냐.”라고 대답한다. 누나의 말이 맞았다. 살기 힘든 곳에서 더러운 것이든 깨끗한 것이든 그러한 가치들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다.

이렇게 김승옥은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사실을 독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그가 이 지독한 니힐리즘적 사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를 염세주의적 세계관에 던져 넣기 위한 것은 아니다. 김승옥은 60년대의 상황인식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가능성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 즉 ‘무(無)’로부터 시작한다. ‘무’와 김승옥이 제시한 저 무거운 우울은 모든 가치의 무너짐이지만 이와 동시에 모든 것의 배후로서 새로운 가치의 가능성이다. 가치란 우리가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 긴요한 것, ‘궁극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¹⁶⁾ 그리고 ‘중요하다’는 것은 가치가 가치로서 존재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가치들이 무가치해지는 것은 가치들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해 오던 존재 방식들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⁷⁾ 존재방식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 김승옥이 택한 방식은 존재 방식들의 완전한 무너짐이며 파탄의 완성으로 인한 새로운 가능성과 질서의 추구였다. 새로운 질서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김

16) 마르틴 하이데거, 『니체와 니힐리즘』, 박찬국 역, 지성의 샘, 1996, 55쪽.

17) 박성진, 「레오 스트라우스와 니체의 니힐리즘: 근대 허무주의 극복의 시도와 실패를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제12호, 2013, 287쪽.

승옥이 택한 것은 다른 가치들의 완전한 무너짐이며 그것은 무너져가는 가치의 모습을 뚜렷이 봄으로써 시작한다. 여기서 김승옥의 말을 들어보자.

흔히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엔 질서가 없다, 가치 판단의 기준이 없다, 신이 없다. 그런 의견들은 사실 옳은 것 같고, 그것이 아무리 현대 전세계의 특징이라고 할지라도 무서운 현상입니다. 본능밖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잔인해질 수 있는 원시인은 몇 만 년 전에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작가로서의 저는, 가령 우리의 다음 세대 또는 나중의 우리가 그것을 파괴하는 재미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질서를 만들 필요를 절감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질서는, 인간이 잔인해지지 않는, 타인의 고통을 자기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가리킵니다.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저는 저의 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짓 저편에, 가슴 저편에 또는 조직의 회칠한 대문짝 저편에 숨어 있는 적들을 하나하나 끄집어 내어 그의 모습을 뚜렷이 봄으로써 저는 적으로부터 행복을 받고자 합니다. 그것을 저는 앞으로도 얼마 동안은 저의 작품으로 삼고 싶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허술함'이 저를 도울 것입니다.¹⁸⁾

이처럼 김승옥은 60년대라는 허무의 공간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하였고 그것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의 허무주의는 적극적이며 순수한 무의 지향이다. 김승옥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적들로부터 받고자 행복은 결국 자기기만을 위해 만들어 낸 가치들의 행복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김승옥의 시도는 19세기 근대가 만들어 놓은 최고의 가치들이 무가치하게 되어 목표가 결여된 시대, 즉 '왜'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 결여된 시대에 니체가 분투했던 작업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니체의 이론을 통해 김승옥의 시도를 다시 살펴보자.

18) 김현, (1995B), 260-261쪽.

IV. 허무의 완성을 통한 허무의 극복

김승옥은 모순에 대한 예민한 반응을 통해 60년대라는 혼란한 삶의 모습 그 자체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가치의 무너짐, 음습한 자기 세계의 구축, 기만과 허무의 익숙함 등 60년대가 간직한 환멸의 모습들을 차분한 어조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그가 절망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더군다나 판단하지도 않으며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이유는 ‘허무’라는 그 무거운 우울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다. 가치들이 작동하지 않는 공간을 느끼며, 절망의 익숙함이 생명의 연습이 되는 가장 비극적 순간에 그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던 것이다. 김승옥 스스로도 자신의 60년대 상황인식이 ‘지독한 염세주의자의 기괴한 독백’만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의 상황 인식은 니힐리즘의 완성을 통한 니힐리즘의 극복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허무의 상황을 단순한 비관주의(pessimism)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그의 시도는 니체가 제시한 ‘적극적 허무주의(active nihilism)’¹⁹⁾와 그 맥락을 공유하고 있다. 기존의 ‘허무주의(nihilism)’는 좌절과 무기력 그리고 통용되는 가치들에 대한 거부를 의미했다. 하지만 니체에 ‘허무주의’는 말 그대로 순수한 ‘무’의 지향이며 환멸의 상황을 정면으로 직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새로운 토대의 구축이었다.²⁰⁾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주장하며 그리스도적 가치의 붕괴와 플라톤적 합리주의의 몰락으로 근대의 기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동안의 절대적 가치들이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선언한다. 인식 준거의 기준과 행위의 원인들이 모두 가치를 상실하여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으며 그 동안 믿었던 절대적 가치들이 그리고 진리라고 생각했던 믿음들이 거품처럼 사라졌다는 것이다.²¹⁾ 니체는 이러한 상황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니힐리즘에 직면하게

19) Thomas L. Pangle, “The Roots of Contemporary Nihilism and Its Political Consequences According to Nietzsche”, *The Review of Politics* Vol.45 No.1, 1983, p.66.

20) Alan Woolfolk, “Toward a Theory of Nihilism”, *Sociological Analysis* 51.1, 1990, p. 105. 니힐리즘을 니체의 방식으로 플라톤적 사유나 기독교적 가치관의 무너짐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토대로 보는 것은 Heidegger(1982), Camus(1956), Goussblom(1980), Warren(1988) 등에 잘 나타난다.

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허무의 순간을 ‘우주론적 가치들의 붕괴’라는 제목으로 묘사하며 어떤 사태가 벌어졌는지를 설명한다.

근본적으로 어떠한 사태가 일어났는가? ‘목적’의 개념으로도 ‘통일’이라는 개념으로도 ‘진리’라는 개념으로도 현실의 총체적 성격이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가치상실감은 대두된다. 현실을 통해서 어떠한 목적도 달성되거나 도달되지 않으며 사건들의 다양성 안에는 어떠한 포괄적인 통일도 존재하지 않고, 현실은 ‘참된’ 것이 아니라 거짓된 것이며 사람들은 참된 세계를 신봉할 어떠한 근거도 전혀 갖지 못한다. 단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세계에 하나의 가치를 투입하기 위해 사용한 ‘목적’, ‘통일’, ‘존재’라는 범주들은 우리에게서 박탈되는 것이며, 이제 세계는 무가치하게 나타난다.²²⁾

니체에 따르면, 근대의 기획이 제시한 가치들이 그 의미를 상실하였을 때, 인류는 ‘목적’을 비롯한 인식의 틀 자체를 상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선과 악 그리고 ‘ 좋음’과 ‘나쁨’ 등의 판단을 할 수 없으며, 이것은 행위와 규칙의 근거를 마련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사태는 니체에게 기회였다. 왜냐하면 니체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은 곧 새로운 가치가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근대라는 역사를 극복하기 위한 작업으로 니힐리즘을 더욱 가속화시킨다. ‘진리가 가상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은 일종의 도덕적인 선입관 이상의 것이 아니다.’²³⁾라고 선언하며 새로운 가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시작한 것이다.

새로운 가치를 위해 니체는 소극적 니힐리즘을 적극적인 니힐리즘으로, 즉 허무 자체를 긍정으로 것으로 전환해야 했다. 허무의 긍정 그리고 ‘무’로 부터의 가능성을 기획해야 했던 것이다. 따라서 니체는 가치들이 붕괴되는 순간에 나타나는 고통을 긍정하고 허무의 공간을 순수한 무(無)의 공간으로 전환하라고 말한다. 순수한 무의 지향을 통해 허무의 공간을 새로운 가능성

21) 박성진, 앞의 글, 285쪽.

22) 마르틴 하이데거, 앞의 글, 80쪽.

23) F. Nietzsche, *Beyond Good and Evil*, trans. Hellen Zimmer, New York: Macmillan, 1907, pp.48-50.

의 공간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니체에게 ‘무에 대한 의지(will to nothingness)’는 니힐리즘을 극복할 수 있는 니힐리즘에 대한 ‘저항 의지(counter-will)’였다.²⁴⁾ 하지만 이러한 역설적 의지는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니체에 따르면, ‘무에 대한 의지’가 허무의 공간을 가능성의 공간으로 전환하는 저항의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비극적인 순간에 대한 긍정이 필요하다. 존재자 전체가 지향하던 이제까지의 모든 목표가 붕괴되고 말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긍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정이 삶 전체에 대한 긍정으로 이어진다면, ‘니힐리즘’이란 용어는 이 용어가 단지 이제까지의 가치들의 무화와 파괴 그리고 존재자 전체가 허망하고 인간 역사는 더 이상 전망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수동적인 니힐리즘의 의미를 떨쳐 버리게 된다.²⁵⁾

니힐리즘이 가치의 무너짐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위한 가치의 해방을 의미하는 적극적 의지로 기능한다는 것은 결국 「서울 1964 겨울」의 세 인물이나 「무진기행」의 윤희중이 겪는 고통들, 즉 허무로 인한 무너져 내림이나 자기기만 등 온갖 더러움을 ‘긍정’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긍정’이란 가치 없음, 즉 새로운 가치가 구축될 수 있는 토대와 그 반복에 대한 긍정이다. 허무의 반복에 대한 긍정. 니체는 이러한 긍정이 최대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무의 긍정과 그것에 대한 의지는 인간이 자신의 두 어깨로 견딜 수 있는 최대의 무게이다.

최대의 무게(The heaviest weight) - 어느 날 낮, 혹은 어느 날 밤에 악령이 너의 가장 깊은 고독 속으로 살며시 찾아들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대는 어떻게 하겠는가 : “네가 지금 살고 있고, 살아왔던 이 삶을 너는 다시 한번 살아야만 하고, 또 무수히 반복해서 살아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것이란 없을 것이지만 모든 고통, 모든 쾌락, 모든 사상과 탄식, 네 삶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네게 다시 찾아올 것이다. 모든 것이 같은 차례와 순서로 - 나무들 사이의 이 거미와 달빛, 그리고 이 순간

24) Wolfgang Müller-Lauter, *Nietzsche: His Philosophy of Contradictions and The Contradictions of His Philosophy*, trans. David J. Parent,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9, p.47.

25) 마르틴 하이데거, 앞의 글, 27쪽.

과 바로 나 자신도. 현존재의 영원한 모래시계가 거둬서 뒤집혀 세워지고 - 티끌 중의 티끌인 너도 모래시계와 더불어 그렇게 될 것이다!” - 그대는 땅에 몸을 내던지며, 그렇게 말하는 악령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엄청난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 “너는 신이로다. 나는 이보다 더 신성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노라!” 그러한 생각이 그대를 지배하게 되면, 그것은 지금의 그대를 변화시킬 것이며, 아마도 분쇄시킬 것이다. “너는 이 삶을 다시 한번, 그리고 무수히 반복해서 다시 살기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은 모든 경우에 최대의 무게로 그대의 행위 위에 얹힐 것이다! 이 최종적이고 영원한 확인과 봉인 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대 자신과 그대의 삶을 만들어나가야만 하는가?²⁶⁾

니체는 자신이 살아 온 삶을 그대로 다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최대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같은 삶이 무한히 반복되는 것을 긍정하는 ‘영원회귀’의 사유²⁷⁾는 삶 전체를 긍정하게 하고 허무의 반복을 긍정하게 한다. 니체의 ‘영원회귀’의 사유는 새로운 존재 방식을 위해 기존의 존재 방식들로 하여금 그 힘을 상실하게 하고 그것을 인정하게 한다. 이렇게 삶 전체에 대한 긍정을 통해 최고가치의 무너짐을 긍정하는 것은 니체에게서는 영원회귀의 사유이고 김승옥의 언어로는 ‘생명연습’이다.

니체가 당대의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nihil리즘을 가속화시키고 ‘영원회귀’의 사유를 제안했던 것은 무의미로 점철된 시대에 대한 저항이었다.²⁸⁾ 마찬가지로 김승옥 역시 니체가 그러했던 것처럼 시대에 저항하기 위해 60년대라는 생명실습장에서 허무의 순간을 직시하게 하며 생명연습을

26) F. Nietzsche, *The Gay Science*, tr. J. Nauckhoff, ed. B. William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p.194-195. aph. 341. 번역문은 안성찬, 홍사현 역(2005), 『즐거운 학문』, 책세상, 314-315쪽 참조.

27) ‘같은 것의 영원회귀(Die Ewige Wiederkehr des Gleichen)’라는 니체의 사유는 인간과 시간에 대한 사유를 통해서 가장 비극적인 순간을 긍정하는 것이다. 니체 자신도 ‘영원회귀’의 사유를 “인간과 시간의 6천 피트 저편”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그리고 이 사유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F. Nietzsche, *Ecce Homo*, trans. R. J. Hollingdale, London: Penguin Books, 1979, p.99.

28) Karl Löwith, “Nietzsche's Doctrine of Eternal Recurrence”, *Journal of the Historical Ideas*, Vol.6 No.3, 1945, p.273.

시키는 것이다. 녹녹한 안개 같은 그의 속삭임 속에는 생명이 있었고 생명의 뼈에로가 연출하는 괴상쩍은 마임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스스로의 생명들을 훈련시키고 있었던 것이다.²⁹⁾

V. 결론: 60년대를 넘어서기 위하여

김승옥은 60년대라는 가버린 시공간 속에서 계속 살아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깊이 참여하고 재현했던 60년대라는 공간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종교에 의지하면서 그 공간을 결국 빠져 나오게 되었다.³⁰⁾ ‘신’에게 모든 가치를 투영하며 그는 그가 그토록 찾았자 했던 질서를 찾았던 것이다. 하지만 김승옥의 독자들은 아직 60년대라는 공간에서 자신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 내고 있다. 수없이 생명연습을 반복하며 가치가 작동하지 않은 공간에서 녹녹하고 침침한 자기세계를 구축하며 자신을 합리화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여기는 물리적 시간이 어떠한지 아직 60년대이다. 사람들은 아직 김승옥이 표현한 그대로 회의와 절망에 슬픔을 반죽하고 있다.

하지만 가치가 작동하지 않는 니힐리즘의 시대에도 60년대가 그러했던 것처럼 가능성은 남아있다. 젊은 시절의 김승옥이 제시한 방식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니체가 근대의 기획을 극복하고 신의 죽음과 최고의 가치들이 무가치하게 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허무의 사실들을 똑바로 직시하고 그 허무를 완성하려고 했던 것처럼 젊은 김승옥은 무진의 안개를, 외롭게 미쳐 가는 것을, 유행가를, 술집 여자의 자살을, 배반을, 무책임을 똑똑히 쳐다보라고 말하고 있다. 가치의 일반적 니힐리즘 속에서 질서나 테제 혹은 전통이 없다면, 먼저 그 ‘없음’을 인식하고 ‘없음’을 완성해야 한다. 수단이 목적이 된 공간에서 그 수단이 질서나 가치가 아

29) 채영주, 「김승옥의 생명연습」, 『김승옥 소설전집 제3권』, 문학동네, 1995, 331쪽.

30) 김승옥은 1981년 4월 종교적 계시를 받는 극적 체험을 한 후, 성경공부와 수도 생활을 시작하였다. 이후 김승옥은 60년대 쓰여진 자신의 단편들을 무신론과 불가지론의 방향 속에서 혼란의 한 가운데 쓰여진 것이라 평가하기도 하였다.

니며 목적 그 자체가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런 목적도 남겨 놓지 말아야 한다. 김승옥과 니체가 제시한 ‘적극적 니힐리즘’이라는 가치는 허무주의의 공간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60년대라는 상황인식을 통해 김승옥의 소설들은 인간에 대한 총체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소설은 어느 이론이나 개인이 인간의 한 측면만을 붙잡고 씨름함으로써 인간을 피상적으로, 그리고 단편적으로 파악할지도 모를 단점을 막고 인간을 총체적으로 보게 한다.³¹⁾ 이러한 총체적 관점은 이론이나 사유체계가 제시한 어떠한 가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또한 그는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했던 것을 탁월하게 요약하며 아직도 우리는 60년대를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60년대를 벗어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한다. 60년대를 넘어 서기 위해 각자의 무진으로 돌아가 자기세계를 정면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책임도 무책임도 없는 안개만이 유일한 명물인 도시에서 무진의 쓸쓸함을 다시 살아내야 한다.

31) 김현 (1995A), 165쪽.

■ 참고문헌

김승옥 단편

「서울 1964년 겨울」

「염소는 힘이 세다」

「역사(力士)」

「생명연습」

「무진기행」

「건(乾)」

김미현, 「서울의 우울: 김승옥론」, 『무진기행: 김승옥 소설집』, 서울: 민음사, 2012.

김승옥, 「작가의 말」, 『김승옥 소설전집I』, 서울: 문학동네, 1998.

김 현, 「현대 한국 문학의 이론/사회와 윤리」, 『김현 문학전집 2』, 문학과 지성사, 1995A.

김 현, 「우리시대의 문학/ 두꺼운 삶과 얇은 삶」, 『김현 문학전집14』,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5B)

마르틴 하이데거, 『니체와 니힐리즘』, 박찬국 역, 지성의 샘, 1996.

박성진, 「레오 스트라우스와 니체의 니힐리즘: 근대 허무주의 극복의 시도와 실패를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제12호, 2013.

설혜경, 「60년대 문학 주체의 마조히즘의 윤리학: 김승옥의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60집, 2015.

송준호,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 연구」, 『現代文學理論研究』 29집, 2006.

신형기, 「분열된 만보객(漫步客): 김승옥의 1960년대 소설 읽기」, 『상허학보』 제11집, 2008.

유홍주, 「김승옥 소설의 60년대적 특징에 대한 고찰」, 『현대문학이론연구』 41집, 2010.

채영주, 「김승옥의 생명연습」, 『김승옥 소설전집 제3권』, 문학동네, 1995.

- Camus, Albert. *The Rebel: An Essay on Man in Revolt*, New York: Vintage Press, 1956.
- Goudsblom, Johan. *Nihilism and Culture*, NJ: Rowman and Littlefield, 1980.
- Heidegger, Martin. *Nietzsche Vol. IV: Nihilism*,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2.
- Lauter, Wolfgang Müller. *Nietzsche: His Philosophy of Contradictions and The Contradictions of His Philosophy*, trans. David J. Parent,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9.
- Löwith, Karl. “Nietzsche's Doctrine of Eternal Recurrence”, *Journal of the Historical Ideas* Vol.6, No.3, (1945).
- Nietzsche, F. *Beyond Good and Evil*, trans. Hellen Zimmer, New York: Macmillan, 1907.
- Nietzsche, F. *Ecce Homo*, trans. R. J. Hollingdale London: Penguin Books, 1979.
- Nietzsche, F. *The Gay Science*, tr. J. Nauckhoff, ed. B. William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Pangle, Thomas L. “The Roots of Contemporary Nihilism and Its Political Consequences According to Nietzsche”, *The Review of Politics* Vol.45, No.1, 1983.
- Warren, Mark. *Nietzsche and Political Thought*, Cambridge, MA: MIT Press, 1988.
- Woolfolk, Alan. “Toward a Theory of Nihilism”, *Sociological Analysis* 51.1 1990.

❖ ABSTRACT

Korean Novels in the 1960s and Nihilism,
the possibility of associated heavy depression

Park, Sung-ji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offer an in depth analysis of the 1960s' nihilism through Kim Seung-ok's novels, and the possibility of coping with nihilism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positive nihilism. The novels of Kim Seung-ok have faced the field opinion where values have been seen to have been collapsed, by the incidence of an individual or humanity's in general meaningless situation. It is noted that in his books, Kim emphasizes that life is dominated by self-deception and self-rationalization. Thus, the author believes that life for mortals is an experience of disillusion. It means that nothingness is a state of being that is left behind everything as experienced in the individual's life. Kim's thought is unique and considered similar to Nietzsche's philosophy which is trying to cope with the age of nihilism which is caused by the downfall of modern values. In this context, Kim notes that 'God is dead' as a slogan, which means that Plato's rationalism have been failed in the state of humanity, and it is a symbol of the end of the following of modern values in the general society. Nietzsche suggested that the concept of positive nihilism is available to anyone who follows it, and which can cope with the idea of negative nihilism. Nietzsche's philosophy which intends to follow a perfect downfall of modern values, is similar with Kim's struggle to overcome the societal beliefs in the 1960s in Korean society. Both of them have proposed an alternative measure regarding how we can escape from the space of nothingness or nihility. They have said that we have to face our nihilism and complete it.

Key Words : Kim Seung-ok, the 1960s, Nihilism, Nietzsche, Positive Nihilism

■ 논문접수일 : 2019. 02. 10

■ 심사완료일 : 2019. 03. 01

■ 게재확정일 : 2019. 03. 11